제1760호 2023년 1월 29일

#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 언약을 붙드는 성경통독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11:4)

2023년 올해 표어는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입니다.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데 언약을 붙드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 충현교회 교사 임명식

**일시**: 1월 29일(오늘) 찬양예배시
**대상**: 교육위원회(전 교회학교), 세움위원회(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선교위원회(외선부), 새가족 위원회(기본과정부, 양육부)

## 중등부 겨울수련회

**일시**: 2월 2일(목)~4일(토) **장소**: 충현 기도원
**주제**: 하나님만 예배하라(신6:4~9)

## 벧엘 찬양대원 모집

**기간**: 2023년 1월 8일(주일)~2월 5일(주일)
**모집인원**: 각 파트별 3명
*자세한 내용은 8면 및 홈페이지 참조

## 월요 중직자 새벽기도회 화요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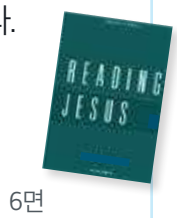
**일시**: 1월 31일(화)부터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 2023년 순장영성훈련

**일시**: 2월 4일(토) 오전 10:00~14:00 **장소**: 갈릴리홀

##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 교재 및 성경읽기표 배부 안내

2023년 성경통독 교재 리딩지저스를 배부합니다. 통독 교재는 총 6권이며, 먼저 제1권과 2권을 배부하며 나머지 책은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기간**: 1월 29일(오늘), 2월 5일(다음 주일)
**장소**: 교구위원회실(선교관 1층) **대상**: 통독교재 구매 사전 입금자

*성경 통독 읽기표는 본당 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월30일(월)부터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이 시작 됩니다. 자세한 안내 주간충현 6면

## 2023년 전도, 선교 설명회

**일시**: 2월 5일(주일) 찬양예배 후 **장소**: 갈릴리홀
**대상**: 교역자/당회원, 집사회/권사회 임원, 각 교구 전도/선교 팀장

2023년
제10기

##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

현재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수료하고 작정한 190여명이 온라인과 현장기도로 계속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 |
|---|---|---|
| 2/4(토) | 10:00-10:50 | 기도와 중보기도 |
| | 11:00-11:50 | 충현교회의 기도운동과 사역의 실무 |
| 2/11(토) 헌신자의날 | 10:00-10:40 |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과 의무 |
| | 10:50-11:30 |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
| | 11:30-13:00 | 제5회 헌신자의 날(예배, 간증, 식탁의 교제) |

| | | |
|---|---|---|
| 2/18(토) | 10:00-10:50 | 신약의 기도 |
| | 11:00-11:50 |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
| 2/25(토) | 10:00-10:50 | 구약의 기도 |
| | 11:00-11:50 | 응답받는 기도 |
| 3/5(주) | 오후 찬양예배시 / 수료 및 헌신서약 예배 | |

**대상**: 충현교회 세례받은 성도 누구나
**일시**: 2월 4일, 11일, 18일, 25일 (토요일, 4주간)
**장소**: 1교육관 501호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QR코드
**신청마감**: 1월 29일(오늘)까지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대한민국 세번째 이야기 피로회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교인 헌혈을 실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를 돕는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헌혈 일시 : 2023년 3월 12일(주), 19일(주), 26일(주)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기간**: 1월 30일(월)~3월 25일(토)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 교구 및 부서 전달 링크를 통한 신청
**헌혈장소**: 본당 앞마당 **헌혈대상**: 헌혈을 원하는 65세 이하 성도(차세대위원회 적극 참여 요망)
**문 의**: 오종학 안수집사(010-2744-2755)
※ 헌혈 기념품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수술비 적립을 위한 기부권으로 제공됩니다.


Copyright© 2023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02-552-8200 발행인: 한규삼 편집인: 이상석 편집: 김상래

2023년 1월 29일 · 제1760호

지난 주일(1월 22일) 설교 되새기기

#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5)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말씀에 "붙잡힘"

성경연구와 목회에서의 저의 경험들을 돌이켜볼 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씀과 사람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는 바울의 노력이 있었기에, 필요한 때에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 '붙잡힘'과 '강권함'은 헬라어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생길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말씀에 붙들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금요집회에서의 성경 암송입니다. 매주 교구마다 돌아가며 성경을 암송시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필사하신 기록들을 살펴보면, 단지 글씨쓰기를 좋아한다거나,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정도로는 계속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한 힘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말씀"에 붙잡힘 – 레마, 로고스, 케리그마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세 개의 헬라어 단어는 '레마(*ῥῆμα*), 로고스(*λόγος*), 케리그마(*κήρυγμα*)'입니다. 먼저, '레마'는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여 그물을 정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베드로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에 작용하여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를 붙잡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인격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지성인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는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인격과 지성을 주되, 지속적인 효과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마'와 '로고스'에 비하여 조금은 생소한 '케리그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선포, 전파, 전도'라는 단어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딤후 4:17)" '선포된 말씀'은 어떤 사람의 내면에는 '로고스'로 작동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흡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실패가 없는 이유이자,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눅 11:32)"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던 '전도(선포하는 말씀)'가 케리그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였음에도, 요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케리그마로 전달되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실 때, 이 케리그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 말씀에 붙잡힐 때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박해를 받게 되었기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행18:6)' 결심하면서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곳에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옆 집이다 보니 유대인은 물론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 사람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마침내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12:50)"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답함'은 원어로 '붙잡힌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고 싶은 답답함이 생깁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 토로했던 것과 같은 안타까움도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붙잡히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 생기는 '답답함'은 말씀에 대한 포기나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더 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의 '하나님께 헌신하기'라는 책입니다. '성화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데, '성화의 길'과 관련한 두 단계가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꾸준히 계속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꾸준히 가야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가기 위해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종적인 목표를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자',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되, 그 길이 맞다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주간 충현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Acts 18:5)

Rev. Kyu Sam Han

The Word of God is absolutely necessary for everyone. I hope you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live a happy life by being occupied with the Word everyday. The text shows the 'appearance of being held on to the Word of God' through the Apostle Paul. Paul preached to Jews that Jesus is Christ. Jews thought dying on a tree is a curse so that it was not easy for Paul to preach to Jews that Jesus who died on the cross was Christ. Nevertheless, because the word of God held on to Paul, he could bravely testify to Jews that 'Jesus is Christ'. Through this, I'd like to examine in detail 'what the life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is like.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Looking back on my experiences in the study of the Bible and ministries,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can not only refer to the specific word of God that occupies us, but also can mean that the personality of God who is the word itself is with us. The reason that the text used the expression of passive voice 'to be seized by word' is because of interaction between word and man. It means that because there was Paul's effort to hold on to the Word, the Word held Paul when he needed it. "For Christ's love compels us"(2Cor 5:14). To be 'occupied' and to 'compel' are the same vocabularies in the Greek Bible. When the Word seizes us, it has the power to compel us. Sometimes we feel the burden from the Word, but we can feel the love in it. Even though it is not what I am not willing to do according to my thought and experience, when I am obedient to what the Word compels me, I can bear good fruits. There are also lots of appearances of being grasped by the word in Choong Hyun Church. One of them is the Bible recitation at Friday services. Every week, each parish is reciting the Bible by turn, with which, I can not imagine, how much God is pleased. Particularly, there are some persons who recite the Bible everyday. Without being seized by the word, it is not the appearance for them to show easily. The same goes for those who transcribe the Bible. Observing the records of having transcribed the Bible for long, everyone could see that it is not easy for anyone to continue simply because the person likes to practice calligraphy or because the person likes the word of God for a moment. Like this,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means the word presides our lives with strong pow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be occupied with 'the word' -Rhema, Logos, and Kerygma**

Three Greek words referring to the Word in the New Testament are Rhema(ῥῆμα), Logos(λόγος), and Kerygma(κήρυγμα). First, 'Rhema' is a subjective word which moves our inner being. Peter and his colleagues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at the Lake of Gennesaret. When they were discouraged and washing their nets, Jesus asked Peter to put out into the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For this, Peter answered,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Luke 5:5), and this 'Word' is Rhema. To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is not in the accordance with Peter's common sense. However, the Word of Jesus operated in the inner-self of Peter and eventually moved his heart. The word of 'Rhema' is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keep our faith and to live transformed lives owing to Jesus. It is because the moment when we listened to the Word, our lives are changed through its dynamic force of taking hold of us. 'Logos' is the word of personality and objectivity. The Word when God created the world with the word is Logos. It is the word that gives us 'the knowledge of God', and also it is the word that is operating decisively in order that the people of God live as intellectuals. The word with which the Apostle Paul was occupied in the text is also 'Logos'. It is the word that gives the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nd besides, it is the word that gives the continuous effects. Kerygma, the word which is a little bit unfamiliar in comparison with 'Rhema' and 'Logos' is the 'word proclaimed'. This word is translated more into the words like 'proclamation, spreading, and preaching in our Bible. "Notwithstanding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that by me the preaching might be fully known,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and I was delivered out of the mouth of the lion."(2Tim 4:17) The 'proclaimed message' operates as 'Logos' at the inside of some people, or it is absorbed as the word of 'Rhema' into the others.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is no failure in the word of God, and that is also the process in which the people of God who took hold of the word are bearing fruits.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Luke11:32) The preaching(proclaimed word) that the men of Nineveh listened to is Kerygma. Even though Jonah did not want the men of Nineveh to repent, the men of Nineveh who listened to the proclaimed word through Jonah came to repent. It is because the Word of God itself had power, I hope you believe the power of the Word being delivered as Kerygma when we testify and proclaim the Word in our lives. When living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this year, I hope the power of Kerygma will appear to us.

**'Things that take place' when occupied with the Word**

When the Word of God took hold of us, what will take place? The Bible says, when taking hold of the Word, 'power' appears. By the way, examining the content subsequent to the text, the 'power' is not accomplished as we want it to be. The Apostle Paul who was occupied with the Word testified bravely to Jews that 'Jesus is Christ.' in the Synagogue, but Jews did not convert. Rather, they persecuted Paul so that he decided to go to the Gentiles(Acts 18:6) and moved to next door to the Synagogue, the house of Titius Justus. Then, just at this place the Gospel began to spread. Because this place was the next door to the synagogue, not only Jews but also Corinthians who were not Jews also came. If occupied with the word, you might suffer from difficulties. But eventually a better road will be opened.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and what constraint I am under until it is completed!"(Luke 12:50) The word "constraint' which Jesus talked about is the word meaning 'be held together' in the original language. When we are seized by the Word, we tend to have the constraint of willing to achieve the Word. Regarding the situation that does not reach the heart wishing to live following the word, we also feel the same regretfulness as the prophet Jeremiah expressed. Nevertheless, I hope you will be occupied with the Word. It is because the regretfulness caused from being caught up with the Word does not end with giving up the Word or criticizing the situation. Rather, you will have greater passion to accomplish the will of God. Here is a book from which I could get help during the period of Covid. It is a book titled Devoted to God written by Sinclair Ferguson, a Scottish theologian of Systematic Theology. It has the subtitle: Blueprints for Sanctification and the two steps related to 'The Path to Sanctification' are equal to my thoughts. The first step is 'to keep going steadily'. Those who are caught with the Word must keep going. We should hold on to the Word and keep going in order to live a life of sanctification in the present age. In order to keep going without stopping, we should be occupied with the Word, and we should hold on to the Word. The second step is 'to look toward the last goal continuously'. 'Since you have put on the new self, set your mind on things you have above'. 'Let's press on toward the goal.' We should check continuously whether the road we are on is right or wrong, and if we are on the right road, we should keep going. The person who is seized by the Word is able to do this work. I hope in the Lord that we all will be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in 2023.

영역·이율의

# 2023년 외선부 겨울 수련회

외선부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추석연휴와 설날연휴 중에 1박 2일로 '가을 수련회' 와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설날에는 "1월 22일(일)- 23일(월)"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라는 주제로 충현교회와 기도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음식과 인원에 딱 맞도록 모두 채워 주셔서 편안한 가운데 서로 교제를 나누며 위로해주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한 외국인 지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한 모습과 소감을 나누어 봅니다.

Meeting with God has always been and will be important for me in my life, so the retreat left its impressions. I will say one thing, that the warmth and cordiality of your thoughts has reached everyone. The venue was absolutely amazing. I thank each of the participants of the meeting for their care and attention. God saves Korea. I also wish the Church prosperity of unshakable faith and love. Regards, Aytalina

CIS팀 아이탈리나 자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교회와 수련회를 늘 참석하였고 설날에는 귀엽게 한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몽골말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이번 성극에서도 한국어 대사로 주요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음식을 몽골음식보다 더 좋아해서 수련회 전날 집에서 밥도 굶고 참석하였어요. 어느덧 숙녀로 자라 주일이면 귀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여 언젠가는 몽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몽골팀 후수랭 자매

2015년 외선부 수련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던 좋은 추억을 잊지 못하고 몽골에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충북에서 1개월 비자로 식당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련회 소식을 듣고 먼 거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기도원 본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던 중에 흐르는 눈물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은 지금 몽골 시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몽골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몽골팀 체책 자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참 기뻤고 다른 외국인들과 게임을 하니까 즐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통역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한국형제들이 우리 외국인한테 친절하고 봉사를 잘 해 주셔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팀 리후어 형제

인도네시아 외국인 친구들이 주일 예배후에 모두 돌아가고 수련회에 혼자 해야 함에 약간 부담스러웠다. 올해는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주어져 집사님의 권면에 사람도 없는데 단호히 빠지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 팀 순서가 빌 것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와 우리 팀을 돕겠다고 온 자매와 미팅을 시작으로 깨알 같은 아이디어와 통통 튀는 준비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두 사람사이에 일어나면서 일사천리로 준비되었다. 주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거였다는 둘의 고백과 함께 프로를 진행하고 감사와 은혜 충만하였음을 고백했다. 늘 부족함만 생각하고 두려워했지 함께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잊었던 것을 회개하며 올 한해도 거침없이 달려보려 한다. 기적을 맛보게 해준 외선부 수련회였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도와준 브릿지 공동체 형제 자매님의 앞날을 축복하고 감사드린다.  샬ㅡ롬

인도네시아 김금순 순장

#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③

## 3. 성경을 식음하라

성경은 밥처럼 먹고 물처럼 마셔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가이드를 구하면서 영적인 양식으로 식음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8:3)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만나를 거둘 때 일정 분량 이상을 거두어도 남지 않았다. 이튿날까지 두면 썩었다.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신 방식이었다. 사람은 물리적인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을 일용할 영적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관리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숲에서 휴식 및 휴양을 취하는 것을 삼림욕이라고 한다. 나무는 산소를 많이 배출하고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죽이는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을 발산한다. 그리스도인은 숲에서 삼림욕을 하듯 성경을 읽으면서 영성욕을 한다. 성경을 읽으면 일단 성경의 맑은 공기를 마신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거나 체험하지 못해도 부지불식간에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사탄과 세속과 육체의 나쁜 세균들이 뿜어내는 탁한 공기를 물리친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계속 읽어야 한다. 등대의 서치라이트로 해변을 두루 살피듯 성경을 살펴야 한다. 보물을 캐듯 파고들어야 한다. 피상적으로 대충 읽지 말고 음미해야 한다. 음식을 꼭꼭 씹어 맛을 보고 소화하듯 성경의 맛을 보고 소화해야 한다. 천국의 만나인 성경을 껍데기만 씹지 말고 알곡을 씹어야 한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도록 씹어야 한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조지 휫필드는 평생 18,000회 이상 설교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조지 휫필드가 부흥의 주역이 된 비결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식음한 데 있었다. "나는 성경을 내 무릎에 두고 읽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로 내 영혼에 음식이고 음료로 입증되었다. 나는 매일 새로운 빛과 힘을 위로부터 얻었다." 개인이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면 개인이 영성욕을 하고, 가정이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면 가정이 영성욕을 한다. 가정에 갈등과 반목과 혐오와 다툼이 잦은 것은 사탄과 세속과 육체의 탁한 공기가 가득해서 가족들이 영통(영적숨통)을 막기 때문이다.

지금 영적인 기근이 아주 심하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뿐 아니라 깊은 공허감이 있다. 영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거의 죽어 있다. 왜 그럴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도 영적으로 굶주린 것은 성경을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배가 부르고 목의 갈증이 사라진다. 안 먹으면 죽는다.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성경 지식만으로는 영적인 굶주림이 해소되거나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약하고 죽어 있을 수 있다. 굶주림을 해소해 주고 갈증을 해갈해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양분을 얻고 힘을 얻어 자라고 일을 한다. 성경도 먹고 마셔야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얻는다. 성경을 식음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면서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찰스 스펄전은 인간들의 현대 사상보다, 성경에 대한 설명보다 성경 자체를 읽어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가 가장 달콤하다.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하늘의 활력을 조금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탱크로부터 마시는 것보다 샘에서 마시는 것이 항상 최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 자체를 스스로 읽는 것이 은혜 안에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 탈지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진액 우유를 마시라.***

교회에 와서 설교는 듣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는데 성경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없다. 주일 설교와 몇몇 성경 구절, 베스트셀러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 개인이 성경 읽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8).

'성경을 식음하라' 이것이 혹시 그림의 떡 같은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을 성경에 적용할 때 부끄러운가? 성경이 어떤 맛인지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전혀 없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떨어졌다면, 세상의 죄악의 맛에 취해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기로 결단하라. 매일 먹는 식사와 음료처럼 이번 한해 매일 성경을 식음함으로 영혼의 배고픔을 겪지 않도록 하라.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결단하라.

- 편집자 주 -

# 알쓸신통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통독방법)

**1.영상자료 시청**
매주 1회 한 주간 읽을 성경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영상자료(소그룹 카톡방 공유)를 시청합니다. 통독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2.성경통독 교재 읽기(리딩지저스)**
영상을 시청한 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발간한 리딩지저스 보조교재 정독합니다.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통독 할 수 있습니다.

**3.성경통독**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독, 다독, 필사, 듣기 등의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합니다. 이미 통독을 많이 해서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새번역 성경'을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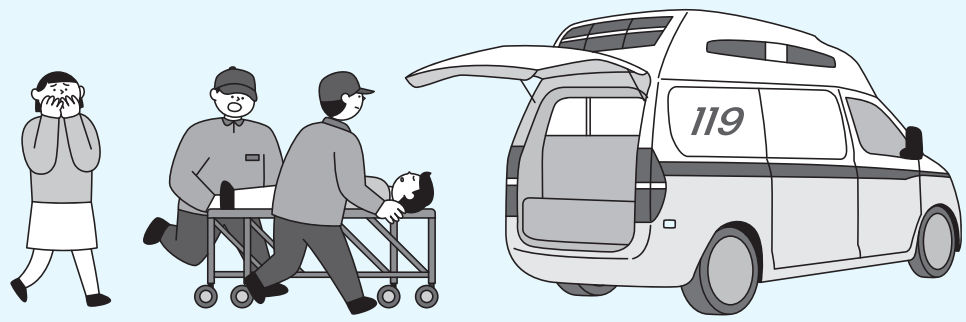
**4.'완독' 올리기**
함께 가면 멀리갈 수(완독)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범위의 성경통독을 마친 후 소그룹 카톡방에 '완독' 메시지를 올려 함께 완독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5.설교를 통해 언약 발견하기**
주일 한규삼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수요예배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성경통독을 통해 발견하고 확인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속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성경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닮아가는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조치 매뉴얼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조치

행정 직원, 교역자, 예배위원회 안내 등 누구든지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1. 환자를 안정시킨다.
2.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3. 심한 부상인 경우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4. 체온유지 출혈방지, 감염방지 조치를 한다. (본당로비 좌측 난간에 구급용 들것, 휠체어, 제세동기 비치되어 있음)
5.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CPR을 시행한다.
6. 긴급조치 이후에 신속히 119 신고 또는 의료인에게 도움을 구한다.
7. 섣부른 진단과 처치를 하지 말고 전문인(119 구조대, 의료인)에게 인계한다.
8. 가족에게 알리어 함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연락한다.

### 응급 구호장비 현황

1. 구급용 들것 1개 - 본당 좌측
2. 휠체어 3개 - 본당 좌측
3. 제세동기 1개 - 본당 좌측
4. 구급함 1개 - 예배위원회실
5. 모포 2장 - 예배위원회실

### 응급구조 대원

1. 금요집회 : 최민석 장로
2. 주일예배 : 백문월 권사
3. 평일상시 : 김어현 집사, 설용 집사

# 새가족 환영회 후기

2023년 1차 새가족 환영회가 1월 15일(주일) 베다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2명의 수료하신 새가족이 참석하였으며, 한규삼 담임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권면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달마다 새가족 환영회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5년에 서대문 봉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형제는 3남매로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주일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 자녀들을 돌보며 놀곤 하였습니다. 제가 중1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금란교회를 출석하며 김선도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남편을 만나 교제 1년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불교집안이어서 저는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고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삶이 힘들었고, 문득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힘들 때에는 충현교회 근처에 살고 있어 가끔 충현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회도 와도고 기도원도 가보았습니다. 남편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애들도 키웠습니다. 힘도 들고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하고 식당을 접었습니다. 그때 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등록은 하였지만 작년말부터 정식으로 새가족 기본과정과 양육과정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직분도 주셨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절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회개와 감사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집사

## 2023년 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대회

202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대회에서 저희 충현교회에서 2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충현교회 입상자(2명)**

- 초등부 6학년 이서진 학생 – 독창부분 은상(2위)
- 고등부 3학년 노윤 학생 – CCM부분 동상(3위)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 신고용)

※ <주일헌금>,<지명헌금>은 개인헌금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동반헌금자는 가능)
교적번호가 같은 가족이라도 합산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재발급이 안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디모데스마트성도앱' 검색 후 설치
- 교회이름/담임목사이름 입력 → "내용보기" 클릭 후 동의 → 이름, 전화번호 입력 → 6자리 인증번호 입력 후 가입완료

1.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이용 발급
① 증명서(기부금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②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개인출력' 또는 '사업자출력'을 선택하여 발급가능금액을 확인하세요.
③ 금액이 이상한 것 같은 경우 '확인요청'을 눌러 교회에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④ 개인출력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정보를, 사업자출력을 선택한 경우 사업자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기부금증명서의 발급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금액수정은 동반헌금인 경우 출력가능 금액만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⑥ '발급'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⑦ 'PDF' 저장 또는 이메일로 'PDF 발송'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선교관 1층 사무국 회계과로 직접 오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 사무국 회계과 / 02)562-1915 또는 070-5077-8865

### 2023년도 회계 교육
**일 시**: 2023년 1월 29일(오늘), 2월 5일(주일) 중 택일 **시 간**: 16:30~18:00 **장 소**: 제 1교육관 301호
**지참서류**: 2023년 예산편성표 사본 **대 상**: 각 위원회 산하 부서의 회계 및 부서장 또는 부감(위원회 간사)

### 2023년도 집사회 정기총회(예결산)
**일 시**: 2023년 1월 29일(오늘) **시 간**: 12시 10분 **장 소**: 집사회 사무실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 No. | 등록번호 | 성 명 | 교육과정 | 인도자 |
|---|---|---|---|---|
| 1 | 169 | 김성규 | 기본과정 | 유미영 |
| 2 | 179 | 김영국 | 기본과정 | 정은영 |
| 3 | 180 | 이민형 | 기본과정 | 이예형 |

**결혼**
1. 최인우 군(최홍준 타교성도·나은영 타교성도의 아들)과 손송이 양(손현수 집사·강인자 권사의 딸, 10교구) / 4일(토) 15:00 노블 발렌티 삼성점, 단독홀

**별세**
1. 장효순 타교은퇴권사(전수선 집사의 모친·김성기 성도의 장모, 1교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2. 서해길 은퇴집사(최낙희 은퇴권사의 남편, 10교구) / 22일 별세, 27일 장례
3. 정광례 성도(이연범 안수집사의 모친·이명숙 권사의 장모, 5교구) / 23일 별세, 25일 장례

### 벧엘 찬양대원 모집
찬양의 멜로디 속에서 함께 삶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모집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등록 후 1년 경과하신 성도
**찬양시간**: 주일 3시 30분(찬양예배)
**연습시간**: 주일오후 1~3시, 4:30분~6시/ 주중 연습 없음
**문의처**: 총무 김선희(010-2297-0039)

### 제107회 총회 '샬롬 부흥전도운동' 위한 '동서울노회 발대식'
**일 시**: 1월 29일(오늘) 오후 7시
**장 소**: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
**대 상**: 교역자, 당회원, 지교회 전도대원, 전도에 관심있는 성도

## 예배 담당(2/1~2/5)

| 날 짜 | 예 배 | 설교 | 사회 | 기 도 |
|---|---|---|---|---|
| 2/1 | 수요 I |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창 13:6-18) 윤성복 목사 | 박요셉 | 고정순 |
| 2/3 | 금요집회 | 복음을 위하여 나는 빚진자라 (롬 1:8-15) 한규삼 담임목사 | 권혁근 | |
| 2/5 | 주일 I | 아담의 역할 (창 2:7-17) 한규삼 담임목사 | 김승래 | 홍순길 |
| | 주일 II | | 문진호 | 정인욱 |
| | 주일 III | | 위안복 | 장기락 |
| | 주일찬양 |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행 19:11-20) 박성덕 목사 | 김유석 | 이승득 |

##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30~2/5)

| 날짜 | 설교자/기도자 | 설교본문 | 주력교구 |
|---|---|---|---|
| 30(월) | 권혁근/남일홍 | 마 6:1-18 | 전교인 |
| 31(화) | 한규삼/신현욱 | 마 6:19-34 | 전교인 |
| 1 (수) | 강성은/김영묵 | 마 7:1-12 | 전교인 |
| 2 (목) | 전영재/지정록 | 마 7:13-20 | 10교구 |
| 3 (금) | 위안복/정유채 | 마 7:21-29 | 4교구 |
| 4 (토) | 김유석/김유석 | 마 8:1-13 | 전교인 |
| 5 (주) | 권순동/권순동 | 마 8:14-22 | 전교인 |

## 주간 충현

###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 구분 | | 시 간 | 장 소 |
|---|---|---|---|
| 주일예배 | I | 오전 9:00 | 본 당 |
| | II |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 |
| | III | 오후 1:00 | |
| 주일찬양예배 | | 오후 3:30 | 본 당 |
| 수요예배 | | 오전 11:00(본당) | |
| 금요집회 | | 오후 7:30 | 본 당 |
|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5:00 | 갈릴리홀 |

###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 구분 | 시간 | 차량 |
|---|---|---|
| 화요집회 | 오전 11:00 | ❶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br>❷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신경철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8교구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10:50~12:00 | 바나바홀(제1교 103호) |
| 유아부 | 10:50~12:00 | 마태홀(제1교 201호) |
| 유치부 | 10:50~12:00 | 마가홀(제1교 202호) |
| 유년부 | 10:50~12:00 | 바울홀(제1교 301호) |
| 초등부 | 10:45~11:30 | 디모데홀(제1교 304호) |
| 중등부 | 10:45~11:45 | 빌레몬홀(제1교 404호) |
| 고등부 | 10:45~11:40 | 베드로홀(제1교 504호) |
| 청 년 1 부 | 14:00~15:30 | 에스라홀(제3교 B201호) |
| 청 년 2 부 | 14:00~15:20 | 한나홀(제2교 402호) |
| 브릿지공동체 | 14:00~15:30 | 사무엘홀(제2교 204호) |
| 청 년 3 부 | 12:30~13:50 | 누가홀(제1교 204호) |
| 신혼가정부 | 12:30~13:30 | 두란노홀(제1교 102호 ) |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 13:00~13:50 | 야고보홀(제1교 501호) |
| 에바다부 | 12:40~13:40 |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

| 구분 | 시간 | 장소 |
|---|---|---|
| 사랑부 | 10:45~11:50 (성인) | 사무엘홀(제2교 204호) |
| | 11:00~12:00 (아동, 청소년) | |
| 성경아카데미 | 12:20~13:30(에스라) | 디도홀(제1교 401호) |
| | 12:40~13:40(아볼로) | 디모데홀(제1교 304호) |
| 소망부 | 12:15~13:30 | 갈릴리홀 |
| 새가족기본과정부 | 오후 12:10 | 베다니홀 |
|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 엠마오홀 |
| 11교구(새가족) | 오후 12:10 |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
| 예꿈 양육부 | (주)오전 8:30~오후 2:30 | 예꿈도서실(제1교 601호)<br>예꿈돌봄실(제1교 701호)<br>유다홀(제1교 702호) |
| 국내외국인선교부 | 11:00~12:10 |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
|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2교육관 1층 |
| 발달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
| 충현평생대학원 | (목) 오전 11:00 | 갈릴리홀 |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섬 · 기 · 는 · 분 · 들

### 한 규 삼 담임목사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 이상석 당회서기 / 오순도 소망부장 /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 이성섭 동산부장 / 이보신 인사위원 / 이상해 기도원부장 /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 이상복 교구위원장 / 지규성 선교위원장 / 김영주 전도위원 /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임이사 / 백봉선 재정위원장 / 박재현 행정위원 /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 송한천 5교구장 / 조윤준 세움위원장 / 최현구 인사위원 /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 변창대 당회부서기 / 허만선 찬양위원장 / 안연식 10교구장 /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 박원화 성례부장 / 이상배 기획위원장 / 박명근 8교구장 /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 박건일 4교구장 / 배종락 건축위원장 /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 홍금성 교육위원장 / 강태영 외선부장 /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 윤순규 1교구장 /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 박성철 11교구장 / 김열환 예배부장 / 김세종 선교위원 / 한흥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 송문식 안내부장 /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 신현욱 실로암대장 / 임병익 사랑부장 /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 이원용 소망부 / 강성은 선교위원회 / 김주한 11교구 /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 윤성복 9교구 / 박동진 2교구 / 문진호 3교구 /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 김상래 브릿지 / 전영재 10교구 / 박영환 6교구 /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 임대영 고등부 / 신경철 초등부 / 임진실 사랑부 /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 박성덕 청년2부 / 권순동 청년1부 / 박요셉 청년3부 /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 주은숙 6교구 / 이수경 평생대학원 / 이정은 11교구 /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 조기숙 7교구 /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